

보도시점 2026. 9. 29.(화) 10:30
(2026. 9. 29.(화) 석간)

배포 2026. 9. 28.(월) 14:00

과기정통부, 서울대에 'AI반도체 혁신연구소' 개소... 산·학 협력으로 차세대 AI반도체 기술개발·핵심인재 양성

- 서울대, 고성능·고효율 AI 반도체 기술 개발·연구를 통해 6년간 110명 이상의 석·박사급 핵심인재 양성 계획

【관련 국정과제】 22. 초격차 AI 선도기술·인재 확보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(원장 홍진배, 이하 'IITP')과 함께 서울대학교(이하 '서울대')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'AI반도체 혁신연구소' 개소식을 9월29일(화)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김준기 기획부총장, 혁신연구소의 소장을 맡게 되는 류수정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과 함께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, IITP 신준우 전략기획본부장, AI반도체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「AI반도체 혁신연구소」 개소를 축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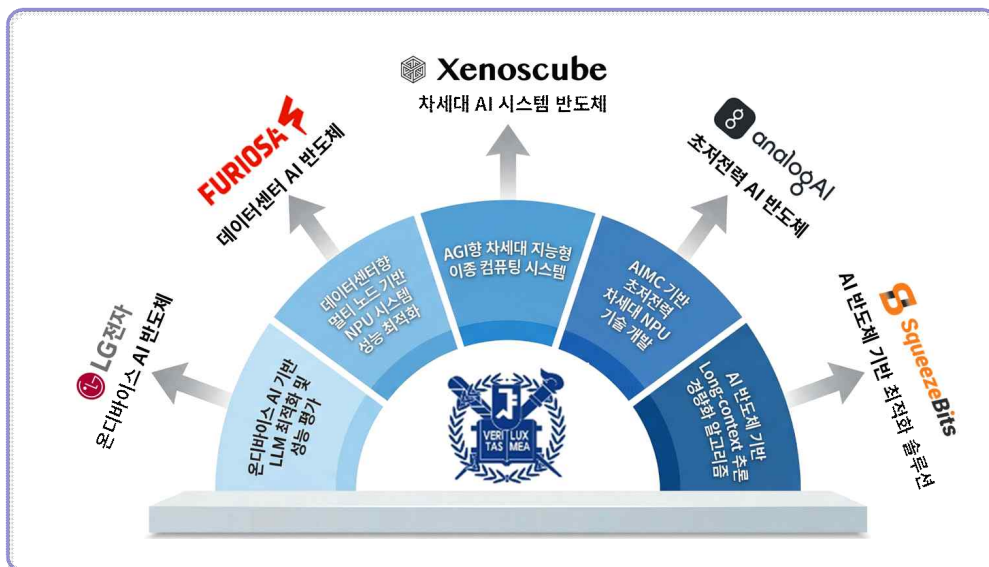
‘AI반도체 혁신연구소(이하 혁신연구소)’ 사업은 국정과제 22번인 ‘초격차 AI 선도기술·인재 확보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「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」 사업이다. 정부는 2025년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선정한 데 이어, 2026년에는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AI반도체 분야 산·학 협력 기반 핵심인재를 더욱 폭넓게 양성하고 있다.

혁신연구소는 국내 대·중소기업, 팹리스(반도체 설계 전문기업), 대학 등 산·학 협력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맞춤형 연구·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계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 특히 올해부터는 NPU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 도출을 필수화하여 학생들의 실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.

오늘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 서울대 혁신연구소는 연구개발부터 기술 평가·검증 및 산업체 수요 연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수요 중심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. 특히 협력기업과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교육-연구-인턴-취업이 연계된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에 맞는 실전형 AI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.

서울대 혁신연구소는 20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을 보유한 류수정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를 구성하였으며, 각 센터에는 LG전자, 퓨리오사 AI, 제노스큐브코리아, 아날로그에이아이, 스퀴즈비츠 등의 기업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대학 연구진과 기업 재직자, 석·박사생이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산·학 협력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.

〈 서울대 AI반도체 혁신연구소 연구센터 구성 개요 〉



정부는 서울대 혁신연구소에 최장 6년(3+3년) 동안 연평균 20억원(1차 연도 10억원)의 지원을 통해 매년 20명(1차 연도인 '26년은 10명)씩 총 110명 이상의 석·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, 학생들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과 기업 파견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.

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“AI반도체가 고성능·초저전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, K-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 구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”이라며, “서울대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·학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

창출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	책임자	과 장	정건영 (044-202-6240)
		담당자	사무관	류혜원 (044-202-6242)
관련 기관	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·반도체인재팀	책임자	팀 장	이영욱 (042-612-8430)
		담당자	책 임	윤성준 (042-612-8433)

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